

SPORTS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씨름 괴물’ 김민재, 추석장사대회 2연속 꽃가마

결정전서 백원중 3-0 제압…랭킹 1위 확정 눈앞

최정만은 금강장사…통산 ‘23번째’ 우승 타이틀

영암군민속씨름단 김민재가 ‘위더스제약 2025 울주추석장사씨름대회’ 백두급(140kg 이하)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대회에 이은 2연패다.

김민재는 지난 8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종합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백두장사 결정전(5관 3선 승제)에서 같은 팀 동료인 백원중(영암군민속씨름단)을 3-0으로 누르고 꽃가마를 탔다.

김민재는 이날 8강에서 김진(증평군청)을 상대로 연이은 밀어치기를 성공시켜 2-0으로 승리를 거뒀다. 이어진 4강에서는 서남근(수원특례시청)을 들배치기와 밀어치기로 눌히면서 결승에 진출했다.

백원중과 만난 결승에서 첫 판 밀어치기로 먼저 점수를 따낸 김민재는 두 번째 판과 세 번째 판에서 들배치기를 연달아 성공시켜 황소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로써 김민재는 지난해 추석장사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올 시즌 2관왕(설날 대회·추석대회) 달성과 동시에 개인 통산 16번째(백두장사 14회, 천하장사 2회) 장사 타이틀도 차지했다.

백두급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김민재는 데뷔 때부터 괴물 같은 실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22년 6월 울산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민재는 주특기 들배치기를 앞세워 민속씨름리그 데뷔전이었던 단오장사대회에서 곧바로 백두장사 타이틀을 따냈다.

이어 11월 참가한 천하장사 씨름대축제에서는 천하장사까지 거머쥐며 씨름판을 들쭉이게 했다.

1985년 이만기(당시 경남대 4년) 이후 37년 만에 처음 나온 대학생 천하장사로 이름을 올렸다.

2023년에는 민속씨름 9개 대회에 참가해 6개 대회(설날대회·문경장사대회·보은대회·단오대회·제천의병장사대회·안산김홍도대회)에서 우승했다. 시즌 전체 1위는 단연 김민재(26승 2패·438점)가 차지했다.

2024년 역시 랭킹에서 29승 4패로 580점을 쌓은 김민재는 2위 태안군청씨름단 최성민(340점)과 격차를 크게 벌려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승점에 따른 시즌 랭킹 도입 이후 백두급 시즌 랭킹 1위는 매번 바뀌는 춘추전국시대였지만, 김민재가 처음으로 2년 연속 백두급을 제패했다.

올 시즌 또한 3년 연속 정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15승 4패 승점 250점을 기록 중인 김민재는 2위 홍지훈(울주군청해뜨마씨름단·16승 6패 승점 240점)과 10점차를 유지하고 있다.

12월까지 2개의 민속씨름 대회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1번의 우승을 더 차지한다면 순위 확정이 유력하다.

앞서 금강급에서는 같은 팀 최정만이 정상을 올랐다.

최정만은 지난 6일 열린 금강장사(90kg 이하) 결정전에서 김기수(수원특례시청)를 3-2로 꺾었다.

이로써 최정만은 올 시즌 2번째 금강장사(설날 대회, 추석대회) 타이틀을 차지하며 개인 통산 23번째 금강장사에 올랐다.

최정만은 8강에서 라현민(울주군청)을 2-0, 4강



‘위더스제약 2025 울주추석장사씨름대회’ 백두장사에 등극한 김민재가 장사꽃가마를 타고 장사인증서와 황소트로피를 든 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씨름협회

에서 정종진(울주군청)을 2-1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장사결정전에서는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이자 올 시즌 4번째 금강장사에 도전하는 김기수(수원특례시청)와 맞붙었다.

첫 번째 판 김기수가 밀어치기로 선취점을 가져갔으나, 두 번째 판 최정만이 잡채기를 성공시키며 1-1 동점이 됐다.

이어진 세 번째 판 김기수가 앞무릎치기로 다시 앞서 가는 듯했지만 최정만이 뿌려치기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며 2-2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승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판 최정만이 밀어치기를 성공해 최종스코어 3-2로 경기를 마무리 지으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올해 KBO 황금 장갑 주인공은 누구…후보 83명 발표

12월 9일 서울 롯데호텔서 골든글러브 시상식

KIA 네일·박찬호·최형우·김호영 등 6명 배출

올해 KBO리그 각 포지션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골든글러브 수상 후보자가 정해졌다.

KBO는 9일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골든글러브 수상 후보 83명을 발표했다.

포지션별 후보로는 투수 33명, 포수 7명, 1루수 6명, 2루수 5명, 3루수 6명, 유격수 8명, 외야수 16명, 지명타자 2명이다. KBO 리그에서 포지션 별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 10명만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누릴 수 있다.

모든 포지션에서 후보를 배출한 구단은 없고, 올해 정규시즌 1위 LG 트윈스가 12명으로 가장 많은 후보를 냈다.

KIA는 네일·양현종·율리(이상 투수), 박찬

호(유격수), 김호영(외야수), 최형우(지명타자) 등 6명의 후보를 배출했다.

후보가 2명뿐인 지명타자 부문에서는 최형우와 강백호(kt위즈)의 대결로 압축됐다.

골든글러브 후보 선정 기준은 투수의 경우 규정이닝을 충족하거나 10승 이상, 30세이브, 30홀드 이상 중 한 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가 명단에 오른다.

포수와 야수는 해당 포지션에서 720이닝 이상 수비로 나선 모든 선수가 후보 명단에 등록된다. 지명타자는 규정타석의 3분의 2인 297타석 이상을 지명타자로 타석에 들어서야만 후보 자격이 주어진다.

KBO 정규시즌 개인 부문별 1위 선수는 자격

요건에 관계없이 기준이 충족된 포지션의 후보로 자동 등록된다.

단 타이틀출수에 한해 여러 포지션에 출전했을 때 어느 포지션에서도 수비이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최다 수비이닝을 소화한 포지션의 후보가 된다.

수비이닝과 지명타자 타석을 비교해야 할 경우에는 각 해당 기준 대비 비율이 높은 포지션의 후보로 등록된다.

골든글러브 선정은 9일부터 올 시즌 KBO 리그를 담당한 미디어 관계자들의 투표로 이뤄진다. 기준에는 한국시리즈 종료 후 투표가 진행됐으나, 모든 후보가 공정하게 정규시즌 성적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표 일정을 조정했다.

올해 골든글러브의 주인공은 오는 12월 9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개최되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공개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울산-KBO 가을리그 14일 개막…4개국 11개팀 출전

내달 1일까지 경쟁…KIA·LG 등 선수 성장·국제 교류 활성화 목표



KBO가 주최하고 울산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2025 울산-KBO 가을(Fall)리그’가 오는 14일 개막한다.

지난해에 처음 막을 올린 이 리그는 국내는 물론 해외팀들이 참가해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국제 교류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KIA, 삼성, LG, 롯데, NC, 고양, 독립리그 올스타, 대학 선발팀 등 8개팀이 참가한다.

해외팀으로는 호주 멤버론 에이시스, 일본 독립리그 선발팀, 중국 CBA 소속 장쭈 휴즈쓰스가 참가해 총 11개 팀이 오는 11월 1일까지 울산 문수구장과 김해 상동구장, 창원 마산구장, 기장 KBO 야구센터에서 약 3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리그는 경기 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개막 전 날인 13일에는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허구연 KBO 총재, 참가팀 감독 및 대표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리셉션이 열린다.

또 울산 지역 리틀야구단을 대상으로 유소년 클

리닉을 개최하고, 해외 팀들은 울산 지역 명소, 관광지 등을 방문해 한국 문화와 먹거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리그는 팀당 13경기씩 예선 65경기를 치르며, 결선 라운드를 거쳐 최종 우승팀에게는 2000만원, 준우승팀에는 1000만원 상금을 수여한다.

예선은 4개 구장에서 하루 최대 5경기씩 열리며, 울산 문수구장의 주요 경기는 tvN SPORTS, TVING, KBO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다.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리는 결선 라운드 역시 동일하게 중계된다.

다양한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엔트리가 없이 리그가 진행되며, 지난 9월 개최된 2026 신인 드래프트에 지명된 내년 신인 선수들도 참가할 수 있다.

우천 등으로 취소된 경기는 예비일이 있는 경기 외에는 재편성되지 않는다.

한편 KBO는 지난해 리그의 성공 개최를 기반으로 올해 리그를 대폭 확대했다.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팀과 유망주들이 참가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

U17 여자 축구대표팀, 월드컵 결전지 모로코로 출국

17세 이하(U-17) 여자 축구대표팀이 2025 국제축구연맹(FIFA) U-17 여자 월드컵에 참가하기 위해 대회 개최지인 모로코로 떠났다.

대한축구협회는 고현복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이 지난 8일 모로코로 출국했다고 9일 밝혔다. 대표팀은 모로코 모하메디아에서 약 일주일간 적응 훈련을 하고 이후 조별리그 세 경기가 열리는 라바트로 이동한다. 우리나라는 19일(이하 한국시간) 코트디부아르, 22일 스페인, 25일 콜롬비아와 차례로 맞붙는다.

이번 대회에서는 24개 팀이 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다. 각 조 1·2위 팀은 자동으로 16강에 진출하고, 3위 팀 중에서는 상위 4개 팀이 16강에 오른다. 대표팀은 지난해 11월 목포에서 소집 훈련을 시작해 총 7차례 국내 훈련을 진행했다.

지난 5월에는 모로코에서 열린 친선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번 대회는 FIFA가 U-17 여자 월드컵을 기존 2년 주기에서 매년 개최로 변경한 이후 처음 치러지는 대회다.

한국은 별도의 예선 없이 최근 3개 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본선에 진출했다.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여자 아시안컵, 2019 AFC 16세 이하(U-16) 여자 챔피언십, 2017 AFC U-16 여자 챔피언십 성적이 산정됐다. 21명의 소집 명단에는 주장 김한아(전남 광양여고)를 비롯해 정유정·류지혜·백지은(이상 울산현대고), 임예지·한국희(이상 경북포항여전고)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름을 올렸다. 2010년생 우서연(경남진주여중)은 유일한 중학생으로 팀에 합류했다. 연합뉴스